

2018서울시 2회 7급 A책형

아주 자세한 해설, 재미있는 암기tip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는 블로그나 이메일로...

출력할 때 페이지가 최대한 짧기지 않게 하여서 페이지가 많습니다. 그래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1. 현대 한국어의 양순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2018서울시 7급 A책형 문)

<보기>

- ㄱ. 양순음에는 ‘ㅂ, ㅃ, ㅍ, ㅁ’ 등이 있다.
- ㄴ. 양순음은 파열음과 마찰음이 골고루 발달되어 있다.
- ㄷ. ‘ㅁ’은 비음이지 양순음은 아니다.
- ㄹ. 양순음은 발음 과정에서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닿는 공통점이 있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ㄹ ④ ㄴ, ㄹ

문제1) 정답 및 해설 (2018서울시 7급 A책형 문1) (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초대박 적중 p.329, 330, 332, 333, 337, 338, 443)

◆ 양순음: 두 입술 사이에서 나는 소리. 국어의 ‘ㅂ’, ‘ㅃ’, ‘ㅍ’, ‘ㅁ’이 여기에 해당한다.

ㄱ. 양순음에는 ‘ㅍ, ㅁ, ㅂ, ㅃ’ 등이 있다. (O)

☺영보이 암기tip 양순음은 파마발 - 파(ㅍ) 마(ㅁ) 발(ㅂ) < ‘ㅃ’과 ‘ㅍ’은 ‘ㅂ’과 같은 계열이므로 같이 암기한다. >

ㄹ. 양순음은 발음 과정에서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닿는 공통점이 있다. (O)

◆ 양(兩: 두 양)쪽의 입술이 (脣: 입술 순) 닿아서 나는 소리가 양순음(兩脣音)이다.

ㄴ. 양순음은 파열음과 마찰음이 골고루 발달되어 있다. (X) → 파찰음(破擦音)

◆ 파찰음(破擦音): **파열음**과 **마찰음**의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지는 소리. ‘ㅈ’, ‘ㅊ’, ‘ㅌ’ 따위가 있다.

◆ 파열음: 폐에서 나오는 공기를 일단 막았다가 그 막은 자리를 터뜨리면서 내는 소리. ‘ㅂ’, ‘ㅃ’, ‘ㅍ’, ‘ㄷ’, ‘ㄸ’, ‘ㅌ’, ‘ㄱ’, ‘ㄴ’, ‘ㅋ’ 따위가 있다

◆ 마찰음: 입 안이나 목청 따위의 조음 기관이 좁혀진 사이로 공기가 비집고 나오면서 마찰하여 나는 소리. ‘ㅅ’, ‘ㅆ’, ‘ㅎ’ 따위가 있다

ㄷ. ‘ㄹ’은 비음이지 양순음은 아니다. (X) → ‘ㄹ’은 비음이자 양순음이기도 하다.

◆ 비음: 입 안의 통로를 막고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 ‘ㄴ’, ‘ㄹ’, ‘ㅇ’ 따위가 있다.

☺영보이 암기tip) 비음을 내는 **나무야** (ㄴ ㄹ ㅇ)

ㄴ ㄹ ㅇ 야 ~ ㄴ ㄹ ㅇ 야 ‘비음’을 내는 ㄴ ㄹ ㅇ 야 ~ ㄴ ㄹ ㅇ 야

문제1) 정답: ③ ㄱ, ㄷ

2.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판소리 용어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2018서울시7급 A책형 문2)

<보기>

문화센터에서 무료로 <춘향가>를 공연한다고 하여 아이들과 함께 방문하였다. 갓을 쓰고 도포를 입은 광대가 서서 노래를 부르고 옆에 앉은 고수는 북으로 장단을 맞추며 이따금 ㉠ “열씨구” 하며 분위기를 돋우었다. 이몽룡이 춘향을 업고 ㉡ 사랑을 속삭이는 노래를 부르는 장면에서는 절로 흥이 일었고 암행어사가 된 이몽룡이 거지로 변장하여 ㉢ 월매와 말을 주고받는 장면에서는 웃음이 터져 나왔다. 암행어사 출두 장면에서 잔치에 모인 벼슬 아치들이 ㉣ 허둥지둥 도망치는 모습을 몸짓으로 흉내내는 것을 보니, 노래뿐만 아니라 연기도 잘해야 판소리 공연을 제대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	㉢	㉣
① 추임새	소리	발림	아니리
② 너름새	더늠	발림	아니리
③ 너름새	더늠	아니리	발림
④ 추임새	소리	아니리	발림

문제2) 정답 및 해설 (2018서울시7급 A책형 문2) (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초대박 적중 p.39)

④ 추임새 소리 아니리 발림 (O)

◆ “열씨구” 하며 분위기를 돋우었다.”로 보아 **추임새**가 정답이다. < 추임새: 판소리에서, 장단을 짚는 고수(鼓手)가 창(唱)의 사이사이에 흥을 돋우기 위하여 삽입하는 소리. ‘종지’, ‘열씨구’, ‘흥’ 따위이다. >

◆ ‘사랑을 속삭이는 노래를 부르는’으로 보아 노래를 부르는 ‘**소리**’라 할 수 있다.

◆ ‘월매와 말을 주고받는’으로 보아 이야기하는 ‘**아니리**’가 옳다.< 아니리: 판소리에서, 창을 하는 중간중간에 가락을 붙이지 않고 이야기하듯 엮어 나가는 사설. >

◆ ‘허둥지둥 도망치는 모습을 몸짓으로 흉내내는’으로 보아 몸짓을 가리키는 발림이 정답이다. < 발림: 판소리에서, 소리의 극적인 전개를 돕기 위하여 몸짓이나 손짓으로 하는 동작 >

문제2) 정답: ④

3. 밑줄 친 부사어의 문장 내에서의 역할이 나머지 셋과 가장 다른 것은? (2018서울시7급 A책형 문3)

- ① 고기가 까맣게 탔다. ② 비겁하게 굴지 마라.
③ 두 사람은 격렬하게 싸웠다. ④ 이 술은 시원하게 마셔야 맛있다.

문제3) 정답 및 해설 (2018서울시7급 A책형 문3)

① 고기가 까맣게 탔다. (일반 부사어 / 생략 가능)

◆ 고기가 탔다. / 고기가 까맣게 탔다. < 강조를 해줄 뿐 생략할 수 있는 부사어 >

② 비겁하게 굴지 마라. (**필수** 부사어 / 필수 부사어는 생략 **불가능**)

◆ 비겁하게 굴지 마라. / _____ 굴지 마라. < 생략 **불가능** >

③ 두 사람은 격렬하게 싸웠다. (일반 부사어 / 생략 가능)

◆ 두 사람은 싸웠다. / 두 사람은 격렬하게 싸웠다. < 강조를 해줄 뿐 생략할 수 있는 부사어 >

④ 이 술은 시원하게 마셔야 맛있다. (일반 부사어 / 생략 가능)

◆ 이 술은 마셔야 맛있다. / 이 술은 시원하게 마셔야 맛있다. < 강조를 해줄 뿐 생략할 수 있는 부사어 >

문제3) 정답: ②

4. 표준 발음법 상 ‘ㄹ’의 발음이 동일한 것들을 바르게 묶은 것은? (2018서울시7급 A책형 문4)

- ① 상견례, 의견란, 백리 ② 임진란, 공권력, 광한루
③ 대관령, 입원료, 협력 ④ 동원령, 구근류, 난로

문제4) 정답 및 해설 (2018서울시7급 A책형 문4)

① 상견례, 의견란, 백리 (O): 모두 [ㄹ]으로 발음됨.

◆ 상견례[상견ㄹㄹ], 의견란[의:견ㄹㄹ], 백리[백ㄹㄹ]

② 임진란, 공권력, 광한루: ‘광한루’만 [ㄹ]

◆ 임진란[임:진ㄹㄹ], 공권력[공권ㄹㄹ] / ‘광한루’[광:할루[ㄹ]]

③ 대관령, 입원료, 협력: ‘대관령’만 [ㄹ]

◆ ‘대관령’[대:관ㄹㄹ] / 입원료[이원ㄹㄹ], 협력[협ㄹㄹ]

④ 동원령, 구근류, 난로: ‘난로’만 [ㄹ]

◆ 동원령[동:원ㄹㄹ], 구근류[구근ㄹㄹ] / ‘난로’[날로[ㄹ]]

문제4) 정답: ①

5. 국어의 불규칙 활용에 대한 <보기>의 설명과 그 예를 가장 바르게 짝지은 것은? (2018서울시7급 A책형 문5)

<보기>

- (가) 불규칙 용언 가운데는 어간의 일부가 탈락되는 경우가 있다.
- (나) 불규칙 용언 가운데는 어간의 일부가 다른 것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다.
- (다) 불규칙 용언 가운데는 어미가 다른 것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다.
- (라) 불규칙 용언 가운데는 어간과 어미가 함께 바뀌는 경우가 있다.

- ① (가) - 짓다, 푸다, 눅다
- ② (나) - 깨닫다, 춡다, 찢다
- ③ (다) - 푸르다, 하다, 노르다
- ④ (라) - 좋다, 파랗다, 부엌다

문제5) 정답 및 해설 (2018서울시7급 A책형 문5) (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초대박 적중 p.333, 340, 534)

① (가) - 짓다, 푸다, 눅다 (X) → ‘눅다’의 경우는 (나)에 해당함.

◆ 짓다: 지어, 지으니, 짓고 < 어간의 일부 ‘ㅅ’이 탈락되는 경우 / 어간이 바뀌는 ‘ㅅ’ 불규칙 용언 >

◆ 푸다: 푸, 푸니 < 어간의 일부 ‘ㄴ’이 탈락되는 경우 / 어간이 바뀌는 ‘우’ 불규칙 용언 >

◆ 눅다: 눅, 눅으니, 눅는 < 어간의 일부 ‘ㄴ’이 탈락되어 ‘우’로 바뀜 / 어간이 바뀌는 ‘ㄴ’ 불규칙 용언 >

② (나) - 깨닫다, 춡다, 찢다 (X) → ‘찢다’는 불규칙이 아니라 규칙 용언

◆ 깨닫다: 깨달아, 깨달으니, 깨닫는 < 어간의 일부 ‘ㄷ’이 다른 것 ‘ㄹ’로 바뀌는 경우 / 어간이 바뀌는 ‘ㄷ’ 불규칙 용언 >

◆ 춡다: 추워, 추우니 < 어간의 일부 ‘ㅂ’이 다른 것 ‘우’로 바뀌는 경우 / 어간이 바뀌는 ‘ㄷ’ 불규칙 용언 >

◆ 찢다: 찢어, 찢으니, 찢는 < ‘찢는’은 규칙 용언 >

③ (다) - 푸르다, 하다, 노르다 (O)

◆ 푸르다: 푸르러, 푸르니 < 어미 ‘어’가 다른 것 ‘러’로 바뀌는 경우 / 어미가 바뀌는 ‘러’ 불규칙 용언 / 푸르 + 어 → 푸르러 >

◆ 하다: 하여, 하니 < 어미 ‘아’가 다른 것 ‘여’로 바뀌는 경우 / 어미가 바뀌는 ‘여’ 불규칙 용언 / 하 + 아 → 하여 >

◆ 노르다: 노르러, 노르니 < < 어미 ‘어’가 다른 것 ‘러’로 바뀌는 경우 / 어미가 바뀌는 ‘러’ 불규칙 용언 / 노르 + 어 → 노르러 >

④ (라) - 좋다, 파랗다, 부엌다 (X) → ‘좋다’는 불규칙이 아닌 규칙 용언

◆ 좋다: 좋아, 좋으니, 좋소 < ‘좋다’는 규칙 용언 >

◆ 파랗다: 파래, 파라니, 파랗소 < 어간 ‘ㅎ’과 어미 ‘아’가 함께 바뀌는 경우 / 어간과 어미가 함께 바뀌는 ‘ㅎ’ 불규칙 용언 / 파랗 + 아 → 파래 >

◆ 부열다: 부예, 부여니, 부열소 < 어간 ‘ㅎ’과 어미 ‘어’가 함께 바뀌는 경우 / 어간과 어미가 함께 바뀌는 ‘ㅎ’불규칙 용언 / 부열 + 어 → 부예 >

문제5) 정답: ③

6. 준말의 표기가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2018서울시7급 A책형 문6)

<보기>

- ㄱ. 되었다 - 뒀다
- ㄴ. 쓰이어 - 쓰여
- ㄷ. 띄이어 - 띄어
- ㄹ. 적지 않은 - 적잖은
- ㅁ. 변변하지 않다 - 변변찮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ㄴ, ㅁ

문제6) 정답 및 해설 (2018서울시7급 A책형 문6) (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초대박 적중 p.275, 276, 440, 474, 475, 477, 482, 488,

ㄴ. 쓰이다: 쓰이어, 쓰여, 씌어 (O)

ㄷ. 띄이다: 띄이어, 띄어 (O) < cf. 띄여(X) >

ㄱ. 되었다 - 뒀다 (X) → 뒀다 / 되었다

ㄹ. 적지 않은 - 적잖은 (X) → 적잖은 / 적지 않은

ㅁ. 변변하지 않다 - 변변찮다 (X) → 변변찮다 / 변변치 않다

문제6) 정답: ② ㄴ, ㄷ

7. <보기>의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8서울시7급 A책형 문7)

<보기>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 새벽빛 와 닿으면 스러지는 /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며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 ① 죽음을 단절과 상실의 아닌 연속과 회귀의 과정으로 인식하였다.
- ② 현실을 초월하고 달관하려는 자유의지를 형상화하였다.
- ③ 새벽빛, 이슬, 노을빛 등을 통하여 초월적 세계의 영원성을 형상화하였다.
- ④ 화려한 수사나 기교가 없는 독백에 가까운 서술로 이루어져 있다.

문제7) 정답 및 해설 (2018서울시7급 A책형 문7) (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초대박 적중 p.524)

◆ 천상병의 「귀천」(1989): 죽음에 대해 달관한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 미련도 집착도 없는 무욕의 경지를 나타내고 있다. / 3음보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독백적인 어조로 담담하게 진술하고 있다.

- ① 죽음을 단절과 상실이 아닌 연속과 회귀의 과정으로 인식하였다. (O)
◆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로 보아 죽음을 단절과 상실이 아닌 연속과 회귀의 과정으로 인식하였다고 할 수 있다.
- ② 현실을 초월하고 달관하려는 자유의지를 형상화하였다. (O)
◆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로 보아 현실을 초월하고 달관하려는 자유의지를 형상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 ③ 새벽빛, 이슬, 노을빛 등을 통하여 초월적 세계의 영원성을 형상화하였다. (X)
◆ ‘새벽빛, 이슬, 노을빛’ 등은 초월적 세계의 영원성이 아니라 유한한 존재, 얼마 지나지 않아 없어지는 존재를 형상화한 것이다.
- ④ 화려한 수사나 기교가 없는 독백에 가까운 서술로 이루어져 있다. (O)
◆ ‘돌아가리라, 말하리라’로 보아 화려한 수사나 기교가 없는 독백에 가까운 서술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제7) 정답: ③

8. <보기>의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2018서울시7급 A책형 문)

<보기>

예술작품이 그렇게 보여야 하는, 또는 그렇게 존재해야 하는 특별한 방식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다시 말해, 간단한 손도구도 예술작품이 될 수 있고, 상품 상자나 쓰레기 더미나 한 줄의 벽돌, 속옷 무더기, 도살된 동물 등도 예술작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술의 역사가 입증하였을 때, 예술의 본성이 철학적 의식에 충분히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20세기 말경이 되어서야 이것이 충분하게 인식되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철학적 미술사가 종말에 이르게 되었다.

- ① 예술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속성만으로 그 지위와 의미가 파악된다.
② 예술이 추구하는 진정한 목표를 바탕으로 작품을 창작하거나 비평해야 한다.
③ 예술의 종말이라는 비판적 관점에서 예술의 위기와 무능력이 나타난다.
④ 예술가가 만들지 않은 대상도 의미를 부여하면 예술품이 될 수 있다.

문제8) 정답 및 해설 (2018서울시7급 A책형 문8)

- ① 예술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속성만으로 그 지위와 의미가 파악된다. (X)
◆ ‘예술작품이 그렇게 보여야 하는, 또는 그렇게 존재해야 하는 특별한 방식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로 보아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속성으로도 그 지위와 의미가 파악될 수 있다.
- ② 예술이 추구하는 진정한 목표를 바탕으로 작품을 창작하거나 비평해야 한다. (X)
◆ ‘예술작품이 그렇게 보여야 하는, 또는 그렇게 존재해야 하는 특별한 방식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로 보아 예술이 추구하는 진정한 목표는 중요하지 않으며 또한 창작하거나 비평해야 한다는 것은 추론할 수 없다.

③ 예술의 종말이라는 비관적 관점에서 예술의 위기와 무능력이 나타난다. (X)

◆ ‘예술의 종말이라는 비관적 관점에서 예술의 위기와 무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은 어디에서도 추론할 수 없다.

④ 예술가가 만들지 않은 대상도 의미를 부여하면 예술품이 될 수 있다. (O)

◆ ‘간단한 손도구도 예술작품이 될 수 있고, 상품 상자나 쓰레기 더미나 한 줄의 벽돌, 속옷 무더기, 도살된 동물 등도 예술작품이 될 수 있다는 것’로 보아 예술가가 만들지 않은 대상도 의미를 부여하면 예술품이 될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문제8) 정답: ④

9. <보기>의 밑줄 친 단어의 한자어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8서울시7급 A책형 문9)

<보기>

설화적 상상 속에서는 경험적 현실에서 생각도 못할 모든 일들이 다 가능하다. 사람이 단숨에 수천 리를 가고 하늘을 훨훨 날아오르며 눈앞에서 감쪽같이 사라질 수 있다. 거지가 하루아침에 왕이 되고 왕자가 한순간에 개구리가 되며 한 사람이 열 명, 백 명으로 나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상적 형상을 말하고 듣는 과정에서 인간의 인지는 힘찬 운동을 하게 된다. 사고의 반경이 부쩍 넓어지고 사유의 역동성이 살아난다. 그로부터 인간 삶의 새로운 지경이 열려 나간다. 인류 역사의 발전은 이런 인지적 운동을 통해 실현된다고 해도 좋다. 틀을 깨는 자유와 역동의 상상적 인지를 통해서 말이다.

① 형상(形象) ② 반경(半徑) ③ 사유(思惟) ④ 지경(至境)

문제9) 정답 및 해설 (2018서울시7급 A책형 문9) (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초대박 적중 p. 140, 141, 370, 371)

① 형상(形象): 形(모양 형) 象(코끼리 상)

1)의미: 사물의 생긴 모양이나 상태. / 마음과 감각에 의하여 떠오르는 대상의 모습을 떠올리거나 표현함. 또는 그런 형태.

◆ ‘마음과 감각에 의하여 떠오르는 대상의 모습을 떠올리거나 표현함’을 나타내는 ‘형상(形象)’은 ‘形(모양 형) 象(코끼리 상)’을 쓰는데, ‘形(모양 형)’에는 ‘彡(터럭 삼: 길게 자란 털)’이 들어가고 ‘象(코끼리 상)’은 그 자체로 쓴다.

◎영보이 암기tip 길게 자란 털[彡(터럭 삼: 길게 자란 털)을 보면 **코끼리**(象: 코끼리 상)의 눈썹 形象(형상)이 떠오른다.

② 반경(半徑): 半(반 반) 徑(지름길 경)

1)의미: ‘반지름’의 전 용어.

◆ 半徑(반경)은 ‘半(반 반) 徑(지름길 경)’을 쓰는데, ‘半(반 반)’은 그 자체로 쓰고 ‘徑(지름길 경)’에는 ‘彳(조금 걸을 척)’이 들어간다.

◎영보이 암기tip 점심시간 **반**(半: 반 반)을 쪼개 **조금 걸으면서**(彳: 조금 걸을 척) 명상을 했더니 사고의 半徑(반경)이 넓어게 되었다. 내일도 걸어야겠다.

③ 사유(思惟): 思(생각 사) 惟(생각할 유)

1)의미: 대상을 두루 생각하는 일.

◆ ‘대상을 두루 생각하는 일’인 사유(사유)는 ‘思(생각 사) 惟(생각할 유)’를 쓰는데, ‘思(생각 사)’에는 ‘心(마음 심)’이 들어가고 ‘惟(생각할 유)’에도 ‘心(마음 심)’이 들어간다.

☺영보이 암기tip) 공무원이 되고 싶은 마음(心: 마음 심)은 굴뚝같지만 요즘 마음(心: 마음 심)이 나약해진 이유를 사유(사유)해 본다.

*동음이의어

1)事由(사유): 事(일 사) 由(말미암을 유). 발음: [사:유](긴소리)

a)의미: 일의 까닭. ≡ 연고(緣故)

◆ ‘일의 까닭’을 가리키는 사유(사유)는 ‘田(밭 전) 由(말미암을 유)’를 쓰는데, ‘事(일 사)’는 그 자체로 쓰고 ‘由(말미암을 유)’는 ‘田(밭 전)’이 얼핏 보인다.

☺영보이 암기tip) 밭(田: 밭 전)에서의 일(事: 일 사)은 힘은 드는데 보람된 사유(사유)를 회장님들은 알려나?

④ 지경(至境) (X) → 地境(지경)

◆ 地境(지경): 地(땅 지) 境(지경 경)

1)의미: 나라나 지역 따위의 구간을 가르는 경계. / 일정한 테두리 안의 땅. / ‘경우’나 ‘형편’, ‘정도’의 뜻을 나타내는 말.

◆ ‘일정한 테두리 안의 땅’을 가리키는 ‘地境(지경)’은 ‘地(땅 지) 境(지경 경)’을 쓰는데, ‘地(땅 지)’는 그 자체로 쓰고 ‘境(지경 경)’에는 ‘立(설 입)’이 들어간다.

☺영보이 암기tip) 풍선 인형이 우리 땅(地: 땅 지)에 서(立: 설 입)서 막춤을 추고 있는데, 너는 초기에 춤을 못 추도록 막았어야지, 이 地境(지경)까지 되도록 뭐하고 있었니? 춤추는 거 따라했구나.. 안 봐도 비디오다.

문제9) 정답: ④

10. ‘의존명사 - 조사’의 짝이 아닌 것은? (2018서울시7급 A책형 문10)

① 할 만큼 했다.

나는 밥통째 먹으리만큼 배가 고팠다.

② 들어오는 대로 전화 좀 해 달라고 전해 주세요.

네 멋대로 일을 처리하면 안 된다.

③ 10년 만에 우리는 만났다.

너만 와라.

④ 시키는 대로 할 뿐이다.

그래야 우리는 다섯뿐이다.

문제10) 정답 및 해설 (2018서울시7급 A책형 문10) (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초대박 적중 p.128, 129, 132, 137, 138)

① 할 만큼 했다. < 용언 ‘할(하다)’ 뒤에 ‘만큼’이 오면 ‘만큼’은 의존 명사이고 띄어 쓴다.

나는 밥통째 먹으리만큼 배가 고팠다. < -으리만큼: ㄹ'을 제외한 받침 있는 용언의 어간이나 어미 '-었-' 뒤에 붙어 '-을 정도로'의 뜻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ㄴ=으리만 치. >

② 들어오는 대로 전화 좀 해 달라고 전해 주세요. (의존 명사)

◆ '대로'가 '어떤 상태나 행동이 나타나는 그 즉시를 나타낼 때에는 '의존 명사'이고 앞말과 띄어 쓴다.

네 멋대로 일을 처리하면 안 된다. (조사)

◆ '대로'가 앞에 오는 말에 근거하거나 달라짐이 없음을 나타낼 때에는 보조사이고 앞말과 붙여 쓴다.

③ 10년 만에 우리는 만났다. (의존 명사)

◆ '만'이 시간이나 거리를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앞말이 가리키는 동안이나 거리'를 나타낼 때에는 의존 명사이고 앞말과 띄어 쓴다.

너만 와라. (조사)

◆ '만'이 다른 것으로부터 제한하여 어느 것을 한정함을 나타낼 때에는 보조사로 앞말과 붙여 쓴다.

④ 시키는 대로 할 뿐이다. (의존 명사)

◆ '뿐'이 다만 어떠하거나 어찌할 따름이라는 뜻을 나타낼 때에는 의존 명사로 앞말과 띄어 쓴다.

그래야 우리는 다섯뿐이다. (조사)

◆ '뿐'이 '그것만이고 더는 없음' 또는 '오직 그렇게 하거나 그러하다는 것'을 나타낼 때에는 보조사로 앞말과 붙여 쓴다.

문제10) 정답: ①

11. <보기>의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2018서울시7급 A책형 문)

<보기>

㉠ 장안(長安)을 도라보니 북궐(北闕)이 천리(千里)로다

어주(魚舟)에 누어신들 니즌 스치 이시랴

두어라 내 시름 안니라 제세현(濟世賢)이 업스랴

㉡ 동풍이 건든부니 물결이 고이닌다

돌드라라 돌드라라

동호를 도라보며 서호로 가자스랴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압뫼히 디나가고 뫼뫼히 나아온다

① ㉠, ㉡ 모두 어부(漁夫)가 지은 노래이다.

② ㉠, ㉡의 화자는 모두 어촌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

③ ㉠의 화자는 나라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고 있다.

④ ㉡는 어촌의 풍경을 역동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문제11) 정답 및 해설 (2018서울시7급 A책형 문11) (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초대박 적중 p.30)

(가) 장안(長安)을 도라보니 북궐(北闕)이 천리(千里)로다 < 장안을 돌아보니 북관이 천리로다 >
어주(魚舟)에 누어진들 니즌 스치 이시랴 < 고깃배에 누워 있은들 (임금님을) 잊은 적이 있으랴 >
두어라 내 시름 안니라 제세현(濟世賢)이 업스랴 < 두어라,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세상을 다스릴
어진 이가 없겠는가. >

◆ 이현보의 「어부단가」로 ‘자연과 함께 살아감’을 노래하였다.

(나) 동풍이 건들부니 물결이 고이닌다 < 동풍이 잠깐 부니 물결이 고이 인다. >
돈드라라 돈드라라 < 돛 달아라 돛 달아라 >
동호를 도라보며 서호로 가자스라 < 동쪽 호수를 돌아보며 서쪽 호수로 가자구나. >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압뫼히 디나가고 뒤희 나아온다 < 앞산이 지나가고 뒷산이 나온다네. >

◆ 윤선도의 「어부사시」 중 봄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① (가), (나) 모두 어부(漁夫)가 지은 노래이다. (X)

◆ 어부의 모습을 담은 작품이지만 지은이는 ‘이현보, 윤선도’로 모두 양반이다.

② (가), (나)의 화자는 모두 어촌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 (X)

◆ (가)는 ‘자연과 함께 살아감’을 노래하였지만 임금을 생각하는 마음이 역력하고 (나)로만 보면 어촌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③ (가)의 화자는 나라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고 있다. (X)

◆ (가)는 임금을 생각하며 나라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다.

④ (나)는 어촌의 풍경을 역동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O)

◆ 동풍이 불고 돛을 달아 배가 움직이는 모습을 역동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문제11) 정답: ④

12. 밑줄 친 단어 중 그 의미가 나머지 셋과 가장 다른 것은? (2018서울시7급 A책형 문12)

- ① 그는 음식이 너무 매워 거의 먹지 못했다.
- ② 장군은 흐르는 눈물 때문에 말을 잊지 못했다.
- ③ 그 아이는 부모의 바람만큼 똑똑하지 못했다.
- ④ 오늘은 너무 바빠서 동창회에 가지 못했다.

문제12) 정답 및 해설 (2018서울시7급 A책형 문12)

◆ 못하다

A) 동사 뒤에서 ‘-지 못하다’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뜻하는 행동에 대하여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것을 이룰 능력이 없음을 나타내는 말.

B) 형용사 뒤에서 ‘-지 못하다’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뜻하는 상태에 미치지 아니함을 나타내는 말.

- ① 그는 음식이 너무 매워 거의 먹지 못했다. - A < 먹다(동사) 뒤에서 ‘-지 못하다’ >
② 장군은 흐르는 눈물 때문에 말을 잇지 못했다. - A < 잇다(동사) 뒤에서 ‘-지 못하다’ >
③ 그 아이는 부모의 바람만큼 똑똑하지 못했다. - B < 똑똑하다(형용사) 뒤에서 ‘-지 못하다’ >
④ 오늘은 너무 바빠서 동창회에 가지 못했다. - A < 가다(동사) 뒤에서 ‘-지 못하다’ >
문제12) 정답: ③

13. 로마자 표기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8서울시7급 A책형 문13)

- ① 독립문 Dongnimmun, 광화문 Gwanghwamun
② 선릉 Seolleung, 정릉 Jeongneung
③ 신문로 Sinmunno, 을곡로 Yulgongro
④ 한라산 Hallasan, 백두산 Baekdusan

문제13) 정답 및 해설 (2018서울시7급 A책형 문13) (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초대박 적중 p.152, 156, 157, 451)

- ① 독립문 Dongnimmun, 광화문 Gwanghwamun
◆ 독립문[동님문][오ㄴ] - Dongnimmun
◆ 광희문 - [광희문]: Gwanghui^hmun < ‘ㄴ’은 ‘ㅣ’소리로 나더라도 ‘ui’로 적는다. >
② 선릉 Seolleung, 정릉 Jeongneung
◆ 선릉[선능] - Seonneung (X) → [설릉][ㄹㄹ] - Seolleung < ‘ㄹㄹ’로 소리 나므로 ‘ll’ >
◆ 표준 발음법 제5장 제20항: ‘ㄴ’은 ‘ㄹ’의 앞이나 뒤에서 [ㄹ]로 발음한다. < 난로[날로] / 신라[실라] / 천리[철리] / 광한루[광:할루] / 대관령[대:괘령] / 칼날[칼랄] / 물난리[물랄리] / 줄넘기[줄럼끼] / 할는지[할른지]
◆ 로마자 표기법 제3장 제1항 2: 음운 변화가 일어날 때에는 변화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적는다.
/ ‘ㄴ, ㄹ’이 덧나는 경우 < 학여울[항녀울] Hangnyeoul / 알약[알락][ㄹㄹ] allyak >
◆ 정릉[정능][ㄴ]: Jeongneung
③ 신문로 Sinmunno, 을곡로 Yulgongro (X) → Yulgokg-ro
◆ ‘신문로’는 [신문노]로 발음하므로 Sinmunno가 옳다.
◆ 로마자 표기법 제3장 제1항: 음운 변화가 일어날 때에는 변화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적는다. 1. 자음 사이에서 동화 작용이 일어나는 경우
◆ 을곡로는 행정 구역 단위 ‘로’가 붙었으므로 Yulgokg-ro가 옳다.
◆ 로마자 표기법 제3장 제5항: ‘도, 시, 군, 구, 읍, 면, 리, 동’의 행정 구역 단위와 ‘가’는 각각 ‘do, si, gun, gu, eup, myeon, ri, dong, ga’로 적고, 그 앞에는 불임표(-)를 넣는다. 불임표(-) 앞뒤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④ 한라산 Hallasan, 백두산 Baekdusan
◆ 한라산[할:라산][ㄹㄹ]: Hallasan
◆ 백두산[백두산]: Baekdu^dusan < 된소리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으므로 ‘du’가 옳다. >
문제13) 정답: ③

14. 밑줄 친 단어 중 표준어가 아닌 것은? (2018서울시7급 A책형 문14)

- ① 잘못된 사람이 되려 큰소리를 친다.
- ② 너는 시험이 코앞인데 맨날 놀기만 하니
- ③ 어제 일을 벌써 깡그리 잊어버렸다.
- ④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억수로 흘렸다.

문제14) 정답 및 해설 (2018서울시7급 A책형 문14) (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초대박 적중 p.266, 304, 399, 404)

① 잘못된 사람이 되려 큰소리를 친다. (X) → 도리어, 되레

◆ 도리어: 예상이나 기대 또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반대되거나 다르게.

☺영보이 암기tip) 레몬 먹고 되레 달콤하다네. 그럼 많이 드세요. < 레몬 - 되레 >

② 너는 시험이 코앞인데 맨날 놀기만 하니 (O)

◆ 맨날(O), 만날(O)

☺영보이 암기tip) 영보이는 맨날 누군가 만날 사람이 있나 보다. < 맨날 - 만날 >

③ 어제 일을 벌써 깡그리 잊어버렸다. (O)

◆ 깡그리: (부사) 하나도 남김없이.

◆ 싸그리: (부사) '깡그리'의 방언(전남)

④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억수로 흘렸다. (O)

◆ 억수: 물을 퍼붓듯이 세차게 내리는 비. /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눈물, 코피 따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문제14) 정답: ①

15. 밑줄 친 용언의 활용형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8서울시7급 A책형 문15)

- ① 아주 곤혹스런 상황에 빠졌다.
- ② 할아버지께 여쭙웁 보시면 됩니다.
- ③ 라면이 분기 전에 빨리 먹어라.
- ④ 내 처지가 너무 설웁서 눈물만 나온다.

문제15) 정답 및 해설 (2018서울시7급 A책형 문15) (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초대박 적중 p.248, 491, 536)

① 아주 곤혹스런 상황에 빠졌다. (X) → 곤혹스러운

◆ 곤혹스럽다: 'ㅂ'불규칙 동사로 어간 'ㅂ'이 '우'로 바뀐다.

- ② 할아버지께 여쭙워 보시면 됩니다. (O)
 ◆ 여쭙다: ‘ㅂ’불규칙 동사로 ‘여쭙워’로 활용한다.
- ③ 라면이 분기 전에 빨리 먹어라. (O)
 ◆ 분다: 불어, 불으니, 분는, 분기 등으로 활용하는데, 자음과 결합할 때에는 받침 ‘ㄷ’이 탈락하지 않는다.(분는, 분기) 하지만 모음이 뒤에 오면 ‘ㄷ’이 ‘ㄹ’로 바뀐다.(불어, 불으니)
- ④ 내 처지가 너무 설워서 눈물만 나온다. (O)
 ◆ 설다: < 활용: 설워, 설으니, 설고, 설지 > / 의미: 서럽다
 ◆ ‘설다’는 뒤에 모음이 올 때에는 받침 ‘ㅂ’이 탈락하나 자음이 올 때에는 겹받침 ‘래’이 온전히 있다. / ‘설다’는 ‘ㅂ’불규칙 동사로 ‘ㅂ’이 ‘오/우’로 바뀐다. **문제15) 정답: ①**

16. <보기>의 ㉠, ㉡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옳은 것은? (2018서울시7급 A책형 문16)

<보기> 민주주의에서 ‘사회적 합의’는 만장일치의 개념이 아니라, 여러 대안들 간의 경쟁을 통해 다수 의사를 만들어 내는 과정과 그 결과를 말한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도 사회적 합의라는 말을 많이 썼지만, 그때의 사회적 합의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권위주의 정부는 대개의 경우 경제 발전과 같은 거시적 성과를 통해 사후적으로 정당성의 취약함을 보완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억압하고자 했다. 민주주의가 권위주의와 다른 것은 사회적 갈등을 억압하지 않는다는 것, 다시 말해 갈등을 정치의 틀 안으로 통합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간다는 데 있다. 그러므로 사회적 ㉠_____을(를) 정치의 틀 안으로 가져오고 이를 진지하게 다뤄야 할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전환해 정치적 결정을 위한 ㉡_____ (으)로 만드는 것이 정당의 역할이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① 문제 | 합의 | ② 갈등 | 성과 | ③ 갈등 | 의제 | ④ 의제 | 문제 |

- 문제16) 정답 및 해설 (2018서울시7급 A책형 문16)**
 ◆ ‘다시 말해 갈등을 정치의 틀 안으로 통합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간다는 데 있다.’로 보아 ㉠에는 ‘갈등’이 들어감을 알 수 있다.
 ◆ 의제: 회의에서 의논할 문제. < ‘진지하게 다뤄야 할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전환해 정치적 결정’으로 보아 ㉡에는 ‘의제(議題)’가 알맞다. **문제16) 정답: ③갈등 / 의제**

17. 국어의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8서울시7급 A책형 문17)

- ① ‘에서’는 ‘집에서 가져 왔다’의 경우에는 부사격 조사이지만 ‘우리 학교에서 우승을 차지했다’의 경우에는 주격 조사이다.
- ② ‘는’은 ‘그는 학교에 갔다’의 경우에는 주격 조사이지만 ‘일을 빨리는 한다’의 경우에는 보조조사이다.
- ③ ‘가’는 ‘아이가 운동장에서 놀고 있다’의 경우에는 주격 조사이지만 ‘그것은 종이 아니다’의 경우에는 보격 조사이다.
- ④ ‘과’는 ‘눈과 같이 하얗다’의 경우에는 부사격 조사이지만 ‘책과 연필이 있다’의 경우에는 접속 조사이다.

문제17) 정답 및 해설 (2018서울시7급 A책형 문17) (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초대박 적중 p.417, 419, 421, 457)

① ‘에서’는 ‘집에서 가져 왔다’의 경우에는 부사격 조사이지만 ‘우리 학교에서 우승을 차지했다’의 경우에는 주격 조사이다. (O)

- ◆ 집에서 가져 왔다. 집에서부터(from home) (처소 부사격 조사)
- ◆ 우리 학교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 우리 학교가(주격 조사)

② ‘는’은 ‘그는 학교에 갔다’의 경우에는 주격 조사이지만 ‘일을 빨리는 한다.’의 경우에는 보조사이다. (X)

- ◆ 그는 학교에 갔다. (‘는’은 보조사 / 주격 조사는 이/가, 께서, 에서)
- ◆ 보조사: 체언, 부사, 활용 어미 따위에 붙어서 어떤 특별한 의미를 더해 주는 조사. ‘은’, ‘는’, ‘도’, ‘만’, ‘까지’, ‘마저’, ‘조차’, ‘부터’ 따위가 있다.
- 주격 조사: 문장 안에서, 체언이나 체언 구실을 하는 말 뒤에 붙어 주어의 자격을 가지게 하는 격 조사. ‘이/가’, ‘께서’, ‘에서’ 따위가 있다.

③ ‘가’는 ‘아이가 운동장에서 놀고 있다’의 경우에는 주격 조사이지만 ‘그것은 종이가 아니다’의 경우에는 보격 조사이다. (O)

- ◆ 아이가 운동장에서 놀고 있다. (주격 조사: 이/가, 께서, 에서)
- ◆ 그것은 종이 아니다.(보격 조사)
- ◆ 보격 조사: 문장 안에서, 체언이나 체언 구실을 하는 말 뒤에 붙어 보어 자격을 가지게 하는 격 조사. ‘철수는 위대한 학자가 되었다.’에서의 ‘가’, ‘그는 보통 인물이 아니다.’에서의 ‘이’ 따위이다.

④ ‘과’는 ‘눈과 같이 하얗다’의 경우에는 부사격 조사이지만 ‘책과 연필이 있다’의 경우에는 접속 조사이다. (O)

- ◆ 눈과 같이 하얗다(비교 부사격 조사)
- ◆ 책과 연필이 있다(접속 조사)
- ◆ 접속 조사: 둘 이상의 단어나 구 따위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구실을 하는 조사. ‘와’, ‘과’, ‘하고’, ‘(이)나’, ‘(이)랑’ 따위가 있다.

문제17) 정답: ②

18.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와 의미상 거리가 가장 먼 것은? (2018서울시7급 A책형 문18)

- ①미봉책(彌縫策) ②임기응변(臨機應變) ③임시방편(臨時方便) ④언 발에 오줌 누기

문제18) 정답 및 해설 (2018서울시7급 A책형 문18) (영보이 한자 초대박 적중 p.55, 60, 61, 120, 121, 211, 214, 215, 303, 304, 309, 310)

◆ 하석상대(下石上臺): 下(아래 하) 石(돌 석) 上(위 상) 臺(대 대)

1)의미: 아랫돌 빼서 윗돌 괴고 윗돌 빼서 아랫돌 꺾는 뜻으로, 임시변통으로 이리저리 둘러맞춤을 이르는 말.

☺영보이 국어plus)

★상고대: 나무나 풀에 내려 눈처럼 된 서리.

① 미봉책(彌縫策): 彌(미룩 미/두루 미) 縫(뽀맬 봉) 策(꾀 책/채찍 책).

1)의미: 눈가림만 하는 일시적인 계책(計策). =彌縫之策(미봉지책)

② 임기응변(臨機應變): 臨(임할 임) 機(틀 기) 應(응할 응) 變(변할 변)

1)의미: 그때그때 처한 사태에 맞추어 즉각 그 자리에서 결정하거나 처리함.

③ 임시방편(臨時方便): 臨(임할 임) 時(때 시) 方(모 방) 便(편할 편)

1)의미: 갑자기 터진 일을 우선 간단하게 둘러맞추어 처리함.

④ 언 발에 오줌 누기: 언 발을 녹이려고 오줌을 누어 봤자 효력이 별로 없다는 뜻으로, 임시변통은 될지 모르나 그 효력이 오래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사태가 더 나빠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동족방뇨(凍足放尿): 凍(얼 동) 足(발 족) 放(놓을 방) 尿(오줌 뇨(요))

a)의미: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뜻으로, 잠시 동안만 효력이 있을 뿐 효력이 바로 사라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다른 유의어 알아보기 < 고식책, 동족방뇨, 목전지계, 미봉지책, 상하탱석, 인순고식, 임시변통 >

1)姑息策(고식책): 姑(시아머니 고) 息(쉬 식) 策(꾀 책/채찍 책)

a)의미: 우선 당장 편한 것만을 택하는 꾀나 방법. 한때의 안정을 얻기 위하여 임시로 둘러맞추어 처리하거나 이리저리 주선하여 꾸며 내는 계책을 이른다.

2)凍足放尿(동족방뇨): 凍(얼 동) 足(발 족) 放(놓을 방) 尿(오줌 뇨(요))

a)의미: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뜻으로, 잠시 동안만 효력이 있을 뿐 효력이 바로 사라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b)속담: 언 발에 오줌 누기

3)目前之計(목전지계): 目(눈 목) 前(앞 전) 之(갈 지) 計(셀 계)

a)의미: 눈앞에 보이는 한때만을 생각하는 꾀.

4)彌縫之策(미봉지책): 彌(미룩 미/두루 미) 縫(뽀맬 봉) 之(갈 지) 策(꾀 책/채찍 책)

a)의미: 눈가림만 하는 일시적인 계책(計策)

5)上下撐石(상하탱석): 上(위 상) 下(아래 하) 撐(버틸 탕) 石(돌 석)

a)의미: 아랫돌 빼서 윗돌 괴고 윗돌 빼서 아랫돌 꺾는다는 뜻으로, 몹시 꼬이는 일을 당하여 임시변통으로 이리저리 맞추어서 겨우 유지해 감을 이르는 말.

6)因循姑息(인순고식): 因(인할 인) 循(돌 순) 姑(시아머니 고) 息(쉬 식)

a)의미: 낡은 관습이나 폐단을 벗어나지 못하고 당장의 편안함만을 취함.

7)臨時變通(임시변통): 臨(임할 임(림)) 時(때 시) 變(변할 변) 通(통할 통)

a)의미: 갑자기 터진 일을 우선 간단하게 둘러맞추어 처리함.

문제18) 정답: ②

19. <보기>의 작품들을 시대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2018서울시7급 A책형 문19)

<보기>	
ㄱ. 올하 올하 아련 비올하. 여흘란 어딴 두고 소해 자라온다. 소곳 얼면 여흘도 뎡흐니 여흘도 뎡흐니.	ㄴ. 龜何龜何 首其現也 若不現也 燐灼而喫也
ㄷ. 출하리 식어디여 범나비 되오리라. 곳나모 가지마다 간 디 족족 안니다가 향 트틴 놀애로 님의 오시 올므리라. 님이야 날인 줄 모르셔도 내 님 조초려 하노라.	ㄹ. 추강에 밤이 드니 물결이 초노미라. 낙시 드리치니 고기 아니 무노미라. 무심흔 돌빚만 싣고 빈 비 저어 오노라.

- ① ㄱ - ㄴ - ㄷ - ㄹ ② ㄴ - ㄱ - ㄷ - ㄹ
③ ㄱ - ㄴ - ㄹ - ㄷ ④ ㄴ - ㄱ - ㄹ - ㄷ

문제19) 정답 및 해설 (2018서울시7급 A책형 문19) (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초대박 적중 p.18, 54, 346)

④ ㄴ - ㄱ - ㄹ - ㄷ

ㄴ - 고대 가요 「구지가」: 구지봉(龜旨峯) 주위에 살던 구간(九干)과 그 백성들이 수로왕(首露王)을 맞기 위해서 부른 고대 가요. 《삼국유사》에 실려 있다.

◆ 수로왕: 가야의 시조(始祖)(?~199). 일명 수릉(首陵). 하늘로부터 김해의 구지봉에 내려와 육 가야를 세웠다는 여섯 형제의 맏이로, 김해 김씨의 시조이다. **재위 기간은 42~199년**이다.

龜何龜何(구하구하) - 거북아 거북아 - 거북이를 불러 주의(注意)를 **환기**(喚起)함.

首其現也(수기현야) - 머리를 내어라. - 머리를 밖으로 빼라고 **요구**(要求)함.

若不現也(약불현야) - 내놓지 않으면 - 조건문을 사용하여 **조건**(條件)을 나타냄.

燐灼而喫也(변작이깅야) - 구워서 먹으라. - 구워 먹겠다고 **위협**(威脅)함.

ㄱ - 고려가요 「만전춘」: 남녀의 사랑을 주제로 한 작자와 연대 미상의 **고려 가요**. 전 5연으로 되어 있으며 《악장가사》에 실려 있다. ≍만전춘별사.

올하 올하 아련 비올하. < 오리야 오리야 어린 비오리야 >

여흘란 어딴 두고 소해 자라온다. < 여울일랑 어디 두고 못(沼: 늪 소)에 자러 오느냐. >소

소곳 얼면 여흘도 뎡흐니 여흘도 뎡흐니. < 못(沼: 늪 소)이 얼면 여울도 좋으니 여울도 좋으니 >

ㄷ - '월산대군'의 시조로 남시를 하는데 고기가 안 물어도 마음이 편안하다는 정서를 나타낸다. / < 월산대군: **조선 성종의 형(1454~1488)**. 휘는 정(婷). 자는 자미(子美). 호는 풍월정(風月亭). 문장이 뛰어나 그의 시작(詩作)이 중국에까지 애송되었다. 작품집에 《풍월정집》 따위가 있다. >

추강에 밤이 드니 물결이 초노미라. < 가을 강에 밤이 드니 물결이 차갑구나 >
 낙시 드리치니 고기 아니 무노미라. < 낚싯대를 뺐어도 고기 아니 무는구나 >
 무심흔 달빛만 싯고 빈 비 저어 오노라. < 무심(無心)한 달빛만 싯고 빈 배 저어 온노라 >

ㄹ - 정철의 시조 「사미인곡」: **조선 선조 18년(1585)**에 정철이 지은 가사. 작가가 관직에서 밀려나 4년 동안 전라남도 창평에서 지내면서 임금에 대한 그리운 정을 간곡하게 읊은 작품으로 모두 126구로 되어 있으며, 《송강가사》에 실려 전한다.

출하리 식어디여 범나빅 되오리라. < 차라리 죽어 범나비 되리로다 >
 꽃나모 가지마다 간 디 족족 안니다가 < 꽃나무 가지마다 간 데를 족족 앗았다가 >
 향 트틴 놀애로 님의 오시 올므리라. < 향기 묻은 날개로 임의 옷에 옮기고 싶구나 >
 님이야 날인 줄 모르셔도 내 님 조초려 하노라. < 임께서는 나인 줄 모르셔도 나는 내 임 따르려 한노라 >

문제19) 정답: ④

20. 국어 품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8서울시7급 A책형 문20)

- ① 관형사는 체언만 수식할 수 있다.
- ② 명사가 다른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도 있다.
- ③ 부사가 체언을 수식하는 경우는 없다.
- ④ 부사 뒤에 조사가 오는 경우도 있다.

문제20) 정답 및 해설 (2018서울시7급 A책형 문20)

- ① 관형사는 체언만 수식할 수 있다. (O)

◆ 관형사: 체언 앞에 놓여서, 그 체언의 내용을 자세히 꾸며 주는 품사. 조사도 붙지 않고 어미 활용도 하지 않는데, '순 살코기'의 '순'과 같은 성상 관형사, '저 어린이'의 '저'와 같은 지시 관형사, '한 사람'의 '한'과 같은 수 관형사 따위가 있다.

- ② 명사가 다른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도 있다. (O)

◆ 장롱 다리, 과일 가게 등 명사가 다른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도 많다.

- ③ 부사가 체언을 수식하는 경우는 없다. (X)

◆ 부사: 부사는 동사, 형용사, 부사, 문장 전체, 체언 등 많은 것을 수식할 수 있다.

◆ **바로** 네가 춘향이로구나. 네, 도련님. 보고 싶었어요. ㅏㅏ

(부사) (체언)

- ④ 부사 뒤에 조사가 오는 경우도 있다. (O)

◆ 걷는 것이 우스꽝스럽지만 **똑바로** 간다.(똑바로: 부사 / 는: 조사)

문제20) 정답: ③

- 영보이 저서 -

- ◆ [2019영보이 공무원 한자\(漢字\) “한자 편”](#) < [2018.08.03.금 판매 예정](#) >
- ★ [2019영보이 공무원 한자\(漢字\) “고사성어 편”](#) < [2018.08.03.금 판매 예정](#) >
- ◆ [2019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 [2018.08.03.금 판매 예정](#) >
 - ※ 2017영보이 공무원 국어 핵심 기출문제집 < [구판임 - 구매하지 마세요!](#) >
 - ※ 2017영보이 공무원 한자(漢字)기출문제와 그의 친구들 < [구판임 - 구매하지 마세요!](#) >
- ◆ 2019영보이 공무원 한국사 파이널 직전 체크 < [출간 예정](#) >
- ◆ 2019영보이 공무원 행정법 파이널 직전 체크 < [출간 예정](#) >
- ◆ 2019영보이 공무원 행정학 파이널 직전 체크 < [출간 예정](#) >
- ◆ 영보이 이메일 < youngboy0710@naver.com >
- ◆ 영보이 블로그 < <http://blog.naver.com/youngboy0710> >
- ◆ 공시 공부는 이렇게: <https://blog.naver.com/youngboy0710/221152935702>

2018서울시 2회 7급 A책형

아주 자세한 해설, 재미있는 암기tip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는 블로그나 이메일로...

출력할 때 페이지가 최대한 끊기지 않게 하여서 페이지가 많습니다. 그래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